

한국-EU, 섬유산업 협력 강화

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EU(유럽연합)와 공동으로 섬유산업협력포럼을 개최키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섬유산 업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.

노희찬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최근 이태리, 독일,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역을 방문하고 피터 프나이슬 유럽 섬유산업연합회(Euratex) 회장을 만나 한국-EU 자유무역협정(FTA)타결을 앞두고 섬유산업에 대한 협력을 공 고히 하기로 결의했다.

한국과 EU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업용 섬유기술 개발, 환경문제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9/02/17>